

[새 사상 새 로정 인솔]

중앙 8항 규정 정신을 솔선수범해 견지하고 참답게 관철하자

습근평 총서기는 당의 기풍은 당의 이미지이자 당과 대중의 관계, 민심의 향배(向背)를 관찰하는 청유계라고 제기했다. 2012년 12월 4일, 중공중앙 정치국은 사업 작품의 개진하고 대중과 밀접히 연계할 데 관한 8항 규정을 심의 채택하고 ‘우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부정기풍을 제거하고 바른 기풍을 세우는 사업을 개시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대당 특유의 난제 해결에 대해 명석하고 확고한 인식을 갖고 8항 규정 정신의 관철과 당의 기풍 건설을 꾸준히 견지하고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그릇된 기풍과 일부 고질 문제를 바로잡았고 당풍과 정풍이 일신되었으며 사회기풍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8항 규정은 새시대 공산주의자들의 ‘딴빛명함’으로 되었다. 2024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중공중앙 정치국은 민주생활회의를 열었다. 이 민주생활회의의 중요한 의정은 바로 2024년 중앙 8항 규정 관철 집행 상황에 관한 중앙정치국의 보고를 청취하는 것이었다. 이는 최근 몇년 사이 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의의 고정 배치로 자리매김했다. 8항 규정은 이미 사람들의 귀에 익은 단어로 되었다. 당의 기풍은 민심의 향배, 당의 생사

존망에 관계된다. 2012년 11월, 습근평 총서기는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회견 장소에서 “쇠를 두드리려면 망치가 더 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책임은 바로 전당 동지들과 함께 당이 당을 관리하고 엄하게 당을 다스리며 자신에게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사업 작품을 확실히 개진하고 대중들과 밀접히 연계하여 우리 당으로 하여금 시종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의 강력한 지도핵심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달후 습근평 총서기가 주재한 중앙정치국회의는 사업 작품을 개진하고 대중들과 밀접히 연계할 데 관한 8항 규정을 심의 채택하였다. 짧다쪼은 600여자, 8개 방면으로 조사연구 및 회의 활동 등 기풍 건설을 강화할 데 대한 규정을 세웠다. 18차 당대회 이후 제정한 당내 첫 중요한 법규로서 중앙 8항 규정은 전당의 기풍 개선의 동원령이다. 며칠후 광둥 심수시를 시찰할 때 습근평 총서기의 소박하고 친민적인 업무 풍격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전당이 8항 규정을 관철하는 데 모범을 보였다. ‘음식 낭비’, ‘오락장소내 그릇된 기풍’, ‘공무용 차량의 부적절한 사용’ 등에 대한 정돈에서부터 기준을 초과하고 공공

으로 ‘먹고 마시고 관광하는’ 행위 정돈에 이르기까지 8항 규정은 장기간 이어진 그릇된 기풍과 다년간 제거하지 못한 일부 고질적 병폐를 철저히 바로잡았다. 이외 당풍과 정풍도 일신되고 사회기풍도 지속적으로 호전되었다. 19차 당대회 개막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우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중앙 8항 규정 정신 관철 성과를 공고히 다지고 확대하며 ‘네가지 기풍’ 문제를 계속 정돈하여 특권사상과 특권현상을 견결히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10월 27일, 19차 당대회 폐막후 열린 첫 중앙정치국회의는 〈중앙 8항 규정을 관철 실시할 데 관한 중공중앙 정치국 실시세칙〉이라는 중요한 문건을 심의했다. 회의는 조사연구를 개진하고 회의 활동을 간소화하는 등 면의 내용을 가일층 규범화하고 세분화하며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차 당대회 개막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앙 8항 규정 정신을 끈기있게 관철하고 ‘관건적 소수’에 착안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외 ‘네가지 기풍’을 지속적으로 바로잡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중점적으로 시정하며 특권사상과 특권행위를 단호히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차 당대회 폐막 3일 후 습근평 총서기는 중앙정치국회의

를 주재하고 〈중앙 8항 규정을 관철 실시할 데 관한 중공중앙 정치국 실시세칙〉을 심의했다. 18기 중앙정치국이 기풍 건설 규칙을 내오고 19기 중앙정치국 제1차 회의에서 이를 가일층 심화하고 세분화하며 20기 중앙정치국 제1차 회의에서 새로운 포지와 요구를 제기하기까지 보여준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중앙 8항 규정을 일관성 있게 관철하고 기풍 건설을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중앙은 최근 전당적으로 중앙 8항 규정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는 학습교양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하에 전당이 ‘못을 박는’ 정신으로 중앙 8항 규정 정신을 관철하고 당의 기풍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한다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데 필연적으로 확고한 보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시대 당건설의 총적 요구를 참답게 관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당의 자아정화, 자아보완, 자아혁신, 자아격상을 전면 추진하며 당의 초심과 사명을 고수해 우리 당으로 하여금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의 확고한 지도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23일 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우메로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량측은 에너지를 비롯한 핵심 문제에 대해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우메로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 나아가 유럽 전체에 ‘품위 있고 지속적인 평화’ 확보 임무를 부여했으며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국가통신사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 참석한 우크라이나대표단에는 우메로프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 판공실 부주임 파벨 팔라자와 이호르 조브코바, 외교부 국무비서 알렉산드르 카라세비치, 에너지부 부부장 미콜라 폴레스니크 등이 포함됐다.

젤렌스키 : 사우디서 열린 우크라이나—미국 대표단 회담 ‘매우 유익’

23일 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비디오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표단이 당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가진 회담은 “매우 유익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각국이 로씨야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로씨야로 하여금 ‘진정한 휴전을 이끌어내게 할 것’을 촉구했다. 젤렌스키는 군부, 외교관 및 에너지 관원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대표단이 리야드에서 미국대표단과 휴전의 ‘기술’ 문제에 대한 2차 회담을 진행중이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우메로프가 회담 진행 상황을 그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대표단의 작업은 매우 건설적이고 미국측과의 대화도 매우 유익하다며 우크라이나대표단은 계속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로씨야가 바로 갈등을 지연시키는 유일한 당사자라며 각국은 로씨야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로씨야측은 계속하여 휴전 합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무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우리가 파트

너들과 무엇을 논의했든 로씨야 대통령 뿌틴이 공격을 중단하는 진정한 명령을 내리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씨야 대통령 대변인 : 로씨야—미국 대통령 필요 시 접촉할 것

로씨야 대통령 대변인 페스코프는 최근 로씨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로씨야 대통령 뿌틴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필요할 경우 계속 접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전 로씨야 국가텔레비죤방송국 방송진행자 자루빈은 소셜 플랫폼에 관련 인터뷰 영상을 게시했다. 페스코프는 로씨야와 미국 대통령 뿌틴이 필요할 경우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외 량측 대표단은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그는 두 나라 수뇌간의 최근 통화는 ‘절대적인 신뢰감, 솔직함과 건설적인 업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페스코프는 로씨야와 미국이 일부 문제에서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두 나라가 상호간 리익이 되는 협력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량측이 각 분야에서 상호 리익이 되는 협력을 펼칠 잠재력은 “측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위기와 로씨야—우크라이나 휴전 문제 해결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에 직면해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각측은 이제야 막 해결을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 갈등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유럽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군비 지출을 늘리고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의 계획을 통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3월 18일, 뿌진과 트럼프는 한달여 만에 다시 통화,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로씨야—미국 관계 정상화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 신화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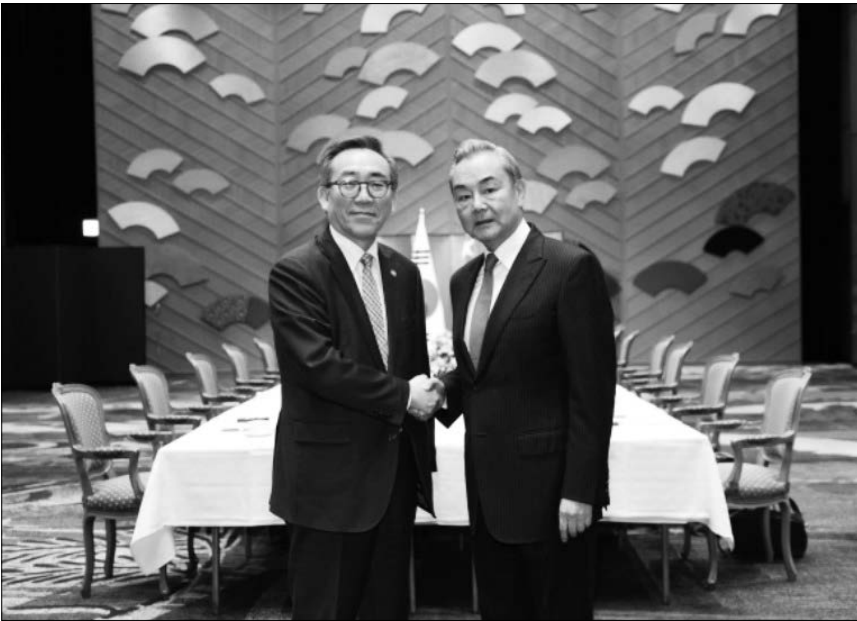
왕의 : 한국 정세와 관계없이 선린우호 관계 유지

21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는 도쿄에서 ‘제11차 중일한 외교장관회의’에 함께 참석한 한국 외교부 장관 조태열과 회견했다.

왕의는 중국과 한국은 이사가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헤어질 수 없는 동반자로 자주 왕래하고 갈수록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 광복 80주년으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력사는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깨우침과 경각심을 주고 앞길을 밝혀주기도 한다. 중국측은 한국에 대한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국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시종일관 중한 선린우호를 견지한다. 이에 한국측도 수교의 초심을 굳건히 지키고 긍정적인 고 우호적인 대 중국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측과 함께 중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 시킴으로써 지역과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각자 기여하기를 바란다.

왕의는 또 중국 량회에서 확정된 경제사회발전 목표를 소개하고 중국 경



21일, 외교부장 왕의와 한국 외교부 장관 조태열 회견 현장. / 신화넷

제가 강력한 성장세·탄성·활기를 유지해 고품질 발전으로 계속해서 한국측을 포함한 각국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와 래년에 한국측은 중국측과 이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지도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량측은 량국 지도자 합의를 잘 리행하며 서로의 성공적 개척을 지지해야 한다. 올해는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량측은 FTA 2단계 협상 추진을 가속화해 조속히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중한 량국은 모두 자유무역의 수혜자이자 수호자이다. 일방주의의 ‘역주행’, 패권과 패름(霸凌)에 맞서 량측은 함께 ‘작은 마당과 높은 벽’을 저지하고 공동으로 ‘디커플링과 공급사슬 단절’을 반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글로벌 공급·산업사슬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

조태열 장관은 중국 량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중국이 현대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취를 거두길 기원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측은 한중 협력을 고도로 중시하고 한중 관계 개선 발전의 량호한 추세를 소중히 여긴다. 또한 APEC 지도자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량측의 외교급 왕래·협력을 강화하고 지방·교회·청년·문화 등 각 령역의 교류를 확대해 량국 국민의 우호 정서를 증진하고자 한다. 국제 형세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한국측은 중국측과 함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길 바란다. 이 밖에 량측은 중일한 협력 반대정세 등 공동의 관심 의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신화넷

중국인 소비가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 소비자 신뢰 대폭 향상’—최근 독일 최대 상업은행인 도이체뱅크는 중국 소비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

해당 은행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하여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느끼는 중국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52%의 응답자가 가져본 지출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 점은 중국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서도 입증되었다. 올해 첫 두달 동안 중국의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8조 3,731억 원에 도달, 증가률이 예상을 초과했다.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교수 왕효송은 기자와의 교류에서 이는 한편으로 작년 이후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게 좋아졌으며 주된 소득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소비 증가에 소득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정부의 일련의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다. 2024년 9월에 일련의 증량 정책을 도입

한 후 올해 전국 량회에서 소비를 크게 진작시키는 것을 10대 과제중 첫 번째로 삼았고 최근 〈소비 진작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소비 확대에 중요한 추진 역할을 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를 원할 때 이는 중국에 깊이 뿌리내리는 외국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될 것이다. 일본 파나소닉홀딩스주식회사(松下控股有限公司) 글로벌 부사장 혼마 테츠로는 중국정부가 일련의 소비 촉진 조치를 내놓아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특히 보조금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중국내 량장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고 세탁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중국 관련 책임자 로레알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년간 중국이 소비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미용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견고한 지지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다음의 중국도 여전히 중국’이라고 굳게 믿는다.” 브로드컴의

시장 겸 최고경영자 진복양은 중국정부와 중국정책의 안정성과 확실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에 대해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했다.

정책이 보장되고 혁신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이 신질생산력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소비시장도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중국) 회장 겸 최고경영자 베레드는 최근 몇년 동안 이 회사는 중국 본토의 기술 연구개발에 의존하여 전동화 전략 전환을 전면적으로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첫번째 제품과 첨단기술은 최근 열리는 상해자동차박람회에서 전면적으로 전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14억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의 하나이자 희소한 자원이란 점이다. 혁신지회사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 도시 주민들은 전세계 소비 증가의 91%를 촉진할 것이며 중국의 700개 도시는 전세계 도시 소비 증가에 총 7조달러를 기여하

여 30%의 기여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소비 주도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경제성장장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리유 때문에 올해 들어 많은 외국자본기관들이 중국 소비시장 전망에 대해 ‘신뢰표’를 던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여러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잇달아 착공되었으며 계획투자액은 330억달러에 달한다. 테슬라, 렉서스 등 여러 다국적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집중투자’를 선언했다. 필리제약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내 생산능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맥도날드는 올해 중국에 1,000개의 신규 매장을 열 예정이며 서비스웨이는 앞으로 매년 300~500개의 매장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투자 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거대한 중국 소비시장은 여전히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흡인력’이 있는 시장이다.

/ 국제방송

윤석열 내란 혐의 첫 공판 4월 14일 개최

24일,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4월 14일에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이날 해당 사건의 두번째 심리 준비 절차를 진행하며 우와 같이 결정했다. 대통령 윤석열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등을 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6일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측은 비상계엄은 정당한 행위이며 이는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합의부는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과 외교부장관 조태열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과 조태열은 대통



직무정지된 한국 대통령 윤석열 / 시각중국

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우려와 만류의 뜻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이송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 심사는 이미 100일을 넘어섰으며 전 대통령 노무현과 박근혜 탄핵 심사 기간을 모두 초과했다.

/ 신화넷